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봉축특집 68면 발행

‘풍요로운 세상을 위한 제언’ A7면
새내기 스님들의 맑은 초발심 A8면
출가10년 40년차가 말하는 불교 A9면

출가를 권하는 사회
세속과 단절 없애는 단기출가
지역축제가 된 ‘미안파 신부’ A10면

출가정신을 구현하는 사람들
‘한국의 구마라집을 꿈꾸다’ A11면
홍다영 기자의 ‘운문사 행자24시’ A15면
‘불교와 세상 징검다리’ 출가상담사 A16면
영선사 ‘형아스님’과 ‘동생스님’들 A17면

‘중생 속으로 향하는 사람들’ A22-23면
찬불가 대중화 최백건 신이나 부부
수행하는 복다자이나 이시현 씨 A27면
불교환경연대 100일 수행 동행취재 A30면
역대 중경스님 봉축법어 A34-35면

국경 세대를 뛰어넘는 불교
‘사건으로 보는 연등회’ B1, 14-15면
불교를 접게하는 뜨거운 청춘 ‘방담’ B5면
서광스님의 ‘젊은 세대 고통치유법’ B8면
속사포 래퍼 아웃사이더의 불교사랑 B9면

평택 스리랑카법당의 부처님오신날 B18면
한국인 사찰 안내하는 부산 외국인 B19면
뉴욕 불광선원 한국문화학교를 가다 B22면
이 시대 불교지도자들의 봉축사 B25, 27면

내소사 ‘전나무 숲길’ 명품으로...
부안군, 진입로 2km 거리 조성

부안 내소사 진입도로가 ‘전나무 명품거리’로 탈바꿈한다. 부안군은 “개발축진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89억원을 투입,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내소사 명소와 거리 정비사업’이 연내 완료되는 가운데 내소사 진입도로 2km에 전나무를 식재해 ‘전나무 명품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석포삼거리에서 내소사 주자창 입구까지 진입도로 2km 구간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포장하고 등산객과 도보탐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내소사는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에 이르는 약 500m 전나무 숲길이 유명했던 만큼 새롭게 조성될 전나무 명품거리와 함께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진재훈 전북지사장 365life@ibulgyo.com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염원”

■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자비로운 봄바람이 지나가는 들녘마다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생명이 움트고 희망으로 가득한 오늘은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인이며, 희망이라는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온 중생이 주인공이라는 환희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부처님은 오로지 중생의 행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씩 갖고 있는 주인이므로, 신분의 귀천도 남녀의 구분도 재물의 많고 적음도 없는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삶이 진정한 진리임을 밝혀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중생이기에 그 자리를 이기심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중생심에서 비롯된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와 세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상을 어렵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근본인 가족공동체마저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의 새싹을 틔워 모든 생명을 감싸

는 대자비의 연꽃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기 2560년은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다짐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명의 이기(利器)가 가져다 준 육신의 편안함과 물질의 과도한 소비를 풍요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자연이 베푸는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면서 풀 한 포기 자라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발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利己)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허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대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풍요, 공동체의 풍요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의 길잡이 되어 어려움

을 이겨내고 통합의 길을 걸어가기기를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불법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세상을 떠나 깨달음을 찾음은 마치 토끼의 뽕을 구함과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은 세상 속에서 구현돼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운 부처님께서 45년간 길 위에서 중생들과 만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지극한 자비심과 실천행은 오늘의 불자들이 이어 세상의 고뇌에 답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류와 민족의 번영,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웃과 함께 하는 동체대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밝은 공동체를 염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을 맞아 세상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도반으로 살아갑시다.

한국 대표하는 ‘세계인의 축제’ 발돋움

젊은층, 외국인 주인공...

美 대사로 연등회 동참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크게 발돋움했다. 지난 7~8일 서울 조계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연등회에는 3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과 불자들, 여기에 외국인들이 대거 합류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이 부처님 오신 뜻을 예경하고 찬탄하는 명실상부한 불교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특히 예년에 비해 축제에 적극 동참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연등회에서 연등행렬이나 연등만들기 체험행사 참여에 국한됐고 관람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올해는 각양각색의 불교문화체험에 적극 나섰고 150여 명의 외국인들로 구성된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가 그 중심에 있었다. 전세계 49개국에서 온 75명의 청년들과 한국인 청년 75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는 7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연등단 율동을 선보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스위스인 제리 메시코퍼(23) 씨는 “스위스에 불교가 없기에 연등회를 비롯한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며 “한국불교에 관해 많은 것을 체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7일 저녁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을 출발해



올해 연등회에선 더 많은 외국인들이 관람객이 아닌, 각자 주인공이 되어 동참했다. 이들은 풍성한 내용과 볼거리, 먹거리가 구비된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라고 입을 모았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행진하는 연등회 연등행렬에서도 ‘2016 슈퍼탤런트 오브더월드’ 미인경연대회 참가자 20여 명이 예정에 없이 행렬에 동참하게 돼 시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도 연등행렬을 보며 즐거워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이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랐다”며 “연등회는 보기에도 예쁘고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아 덩달아 기분이 좋다. 부

처님오신날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방식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8일 낮시간 동안 펼쳐진 조계사 앞 우정국로의 ‘불교문화한마당’에도 외국인들이 주인공이 됐다. 한국 차문화를 직접 만끽하는가 하면, 금니사경이나 단청문양 그리기, 전통도에 체험 등 불교문화를 폭넓게 체험하고 환호했다. 대한사불수행연구회가 차린 고려전통금니사불체험 부스에서 1시간 가까이 금니사경을 한 캐나다 대학생 루나(25)씨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친구로부터 꼭

봐야 할 축제라는 소개를 받고 동참하게 됐다”며 “기대 이상으로 볼거리가 많아서 안왔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불교문화한마당에는 우리나라 불교 뿐만 아니라 태국 스리랑카 네팔 몽골 미얀마 등 세계 각국의 불교문화도 맛볼 수 있도록 구비했다. 문화마당에 부스를 차린 일본 나고야 지장사 주지 진노 뎃수 스님은 “정말 화려하고 감동적인 연등회”라고 감탄하면서 “앞으로 매년 부처님 오신날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등회는 젊은층 동참률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7일 동국대운동장에서 연등회의 시작을 알린 봉축연희단은 신명나는 율동과 환호로 축제분위기를 달궜다. 특히 성철스님의 법어를 랩으로 재구성한 노래는, 법회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를 과감하게 깨부수고 스님과 중년 불자들의 어깨까지 들쭉이게 했다. 불교문화한마당에 올해 처음 개설한 특설무대, 정춘마당도 8일 하루종일 젊은 열기로 들끓었다. 조계사청년단 소속 반야율동단이 정춘마당에서 선보인 멋드러진 춤과 노랫가락이 울리면 차랑통에서 벗어난 인근에까지 일시적인 차랑장제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경과 종교를 뛰어넘어 나와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불법과 지혜의 등불로써 세상을 비춘 ‘불기 2560년 연등회’는 14일 부처님오신날 당일 봉축법요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부처님오신날

미래100년 중본산성역화
조계사 사부대중이
함께 합니다.